

화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2년 연속 우수 사업소 선정

전국 140개 임대사업소 중 상위 30%...국비 7500만 원 확보



화순군이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9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우수 사업소'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탁평가 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140개 시·군이 운영하는 460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50위까지 우수 임대사업소를 선정해 노후 농기계를 교체할 수 있는 국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화순군은 농기계 임대 실적, 수요자 만족도, 인력 운영 등 전체 평가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국비 7500만 원을 포함해 1억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군은 지난해에도 전국 우수 사업소로 선정돼 노후 농기계 교체를 위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군은 신규 농기계 38대를 구매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신기종 농기계 구매, 노후 농기계 교체 등 농가 편의 증대를 위해 계속해서 임대사업을 확대해 발 농업 기계화율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 창평면, '똑똑생활상담소' 오픈

인권사각지대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담양군 창평면에 각종 법률 및 고충 상담을 전문가와 연계해주는 '똑똑생활상담소' 가 문을 열었다.

창평면은 지난 12일 창평면 농민건강증진센터에서 똑똑생활상담소의 개소식을 갖고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서비스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농민들의 각종 법률 및 복지 상담을 담당하는 '광주민변농업법연구회'의 김정희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 13명 등 관계자와 창평면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똑똑생활상담소는 비정규직 노동자

와 이주여성, 청소년, 농민 등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 광주노동상담소,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민변농업법연구회, 전라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등의 전문가들과 연결해 도움을 주는 인권지원관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상담소를 이끄는 송희용 대표는 "우리 상담소는 법률 지식이 없어 권리를 찾지 못하는 주민 모두를 위한 비영리단체"라며 "누구든지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상담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나주시, '나주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개최

자연 경관·문화재 등 주요 관광자원 40개소 대상

나주시는 국내·외 나주 관광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콘텐츠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관광기념품 공모에 이어 전국 단위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1인 당 최대 3점까지 출품 가능하며, 2019년 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 조사, 지정된 나주시 주요 관광자원 40개소를 대상으로 한 사진을 출품하면 된다.

단, 2018년 11월 이후 찍은 사진에 한하여 출품 가능하며, 합성·조

작·변형된 사진, 표절 및 모방작, 타인 대리 출품작, 타 공모전 입상작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전 대상지는 금성산, 산림자원연구소, 드림강(솔밭유원지), 양암바위, 한수재, 나주호, 우습재, 영산강 유채꽃밭 등 천혜의 자연 경관을 비롯해 나주읍성 4대문, 금성관, 목사내아, 나주향교, 정렬사, 다보사, 불회사 등 역사문화재(고찰)가 포함됐다.

나주영상테마파크, 황포돛배, 영산포동대, 도래마을, 느리지 전망대,

반남고분군 등 인기 관광지와 마한 문화축제, 영산포 흥어축제, 나주천년유성문화축제는 올해 열린 축제 사진을 각각 출품하면 된다.

공모전 총 상금은 1,000만 원으로 최우수상 1명(200만 원), 우수상 2명(각 100만 원), 장려상 4명(각 50만 원), 입선 40명(각 10만 원) 등 총 47 점을 선정해, 11월 20일 나주시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나주시 누리집(고시공고)공고번호-77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인규 시장은 "2천년의 역사문화도시 나주의 매력을 한 눈에 담고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우수한 관광 사진들이 출품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함평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

나주시 함평군수 권한대행이 2019년도 운영주요업무 및 국·도비 건의사업, 각종 공모사업을 직접 행한다.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2019년도 함평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회'가 17일까지 나 권한대행 주재로 군청 부군수실에서 열렸다.

주요 현안 및 국·도비 건의사업,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후 대책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보고회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생략하고 당면현안과 계속사업을 포함한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 위주로

논의된다.

특히 인구감소, 고령화 등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현실을 감안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지역 산업인프라 확충 및 정주환경 개선과 관련된 국·도비 건의사업도 집중 점검한다.

현재 함평군이 전남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한 국·도비 사업은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2단계) 조성사업 ▲함평만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등 총 31개 사업, 1900여억 원이

이 중에는 ▲함평축산특화산단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지난해 이미 집행이 시작된 사업(18년도 집행액 34억 8700만 원)도 4개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나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 집행된 사업도 있지만, 남은 대다수가 올해부터 새로 추진되는 사업들"이라며, "더욱 세심한 접근 및 관리로 보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내야 한다"고 해당 실과소장들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함평=김평훈 기자

영광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기관·사회단체장, 여성단체회원 등 300여 명 참석



영광군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지난 15일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기관·사회단체장, 여성단체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영광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영광군 주최, 영광군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평등을 일상으로, 행복을 영광으로!' 함께 한 100년, 함께 할 100년'이라는 주제로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양성 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양성평등헌장 낭독, 양성평등 확산으로 차별 없는 영광 미래의 100년을 만들겠다는 주제결의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의 애환을 신명나는 노래를 통해 유쾌하게 풀어낸 극단 오렌지아트컴퍼니의 '엄마의 노래' 공연이 펼쳐져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준성 군수는 "이번 행사가 여성과 남성에 동등한 권리와 책임 부여, 공평한 참여 기회로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영광군에서도 양성평등의 가치가 가정과 일터를 중심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려 사회 전 영역에서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장성군, 결핵 퇴치 위한

'결핵 검진'에 총력

장성군이 결핵발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결핵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찾았다.

장성군 보건소는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와 연계하여 지난 15일~16일 이틀간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4개소를 방문해 흉부 X-ray 검진을 실시했다.

'결핵'은 결핵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초기에는 기침, 가래 등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노인들의 경우 결핵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

군 보건소는 노인의료복지시설 4개소를 찾아 어르신 200여 명에 대한 결핵 검진을 완료했다. 이번 검진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외상환자의 편의를 위해 누운 상태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이동검진 장비를 활용했다.

보건소는 유소견자에 대해 확진검사를 시행하고 확진 시에는 치료를 실시하여 완치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한다.

장흥군, 대덕 덕촌방조제 개보수 추진

국비 35억원 확보

장흥군은 국비 35억원을 확보해 대덕읍 덕촌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1977년 축조된 대덕읍 덕촌방조제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 일부 시설물이 개보수가 시급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방조제의 파손 및 농경지 349ha에 침수

와 염해 피해가 우려되어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정종순 장흥군수와 김태원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은 대덕 덕촌방조제 내 농경지 침수방지와 안전한 영농환경 구축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 의원을 만나 지

역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장흥군은 국비 3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추진을 추진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는 금년 하반기부터 면밀한 현황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덕촌방조제의 해측 사석보강 2.7km, 단면 보수·보강, 권양기 교체(5ton, 20톤) 및 원활한 방조제 관리를 위한 자동화 시설 등이다.

